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8월 20일(금) ... (음력 7월 13일) ... Пятница 20 августа 2021г. № 32 (1194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8월 22일은 러시아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인 국기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친애하는 여러분!

8월 22일은 러시아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인 국기의 날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국기의 삼색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주 전역에서는 국기가 펄럭이며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향과 가족들을 상기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성취에 사기를 북돋웁니다.

의료, 교육, 건설, 생태, 다른 주요 분야에서 우리의 공동의 성취로 전 러시아와 사할린주의 현재와 미래가 형성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국기를 높이 들어올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승리와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연방 수준에서 사할린의 주택 건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자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투르프네브가 주재한 이사회에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건설산업개발이다. "올해 <극동 정착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가 더 많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는 구조 체계가 개발되고 있다. 사실 모든 행정자치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부총리가 언급했다.

사할린주는 <극동 정착지> 공식 승인에 시범지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정부가 건설을 위해 토지 구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제반시설이 가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을 위한 1m<sup>2</sup>당 원가가 저렴해진다. 연방 예산의 지원 덕분에 건설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다.

사할린주에서 우리는 장기적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370개의 건설 적합 지역을 설정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2019년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는 33만m<sup>2</sup>의 주택 건설이 이뤄졌으며, 2020년에는 이보다 11만m<sup>2</sup> 더 건설되었고 올해 계획은 50만m<sup>2</sup>다.

사할린주는 주민 인구 수 대비 주택 건설 운용량에 있어서 러시아에서 우수한 지표를 가진 지역 중 하나다. 현재 사할린에 건설된 주택의 3분의 1이 임대주택과 복지주택이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2017년 1월까지 주거로서 부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된 주택들의 가구들을 가장 먼저 이주시킨 지역 중 하나다. 사할린주는 2026년까지 새로운 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정착 주택 13만1천m<sup>2</sup>로 주민을 이주시켰고 올해는 12만m<sup>2</sup>를 건설해 이주시킬 예정이다. 새해 전까지 5천8백 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보금자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5년간 2만9천 명의 주민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다.

사할린주는 재정착 기금으로의 이주자와 건설시장 조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구조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할린주에는 주택 건설에 적합한 택지 370곳이 조성되어 있다.

<극동 정착지> 프로그램이 달네예,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미출롭카 마을에 생길 수도 있으며

아니와 지역은 개별 주택 건설 적합지로 정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30만m<sup>2</sup>의 '우윤'과 50만m<sup>2</sup>의 '세웨르니고로독' 2개의 큰 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도로망, 냉온수관망, 전력 공급망 건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제반시설 국고채권 체계를 이용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사할린주에서는 현지 건축자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사할린 예산에 대한 추가 세금이 공제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는 사할린에서 유일하게 대형 패널 건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는 주택 건설 공장이 가동되어야 한다. 티뭉스코에 구역에는 목재 다층 접착판넬이 생산되는 목재 가공단지 건설이 계획돼 있다. 이 친환경 건축 자재는 개별 주택 건설에 이용될 전망이라고 주정부가 전했다.

### 단신

#### 이 세르게이,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표창장 받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이 8월12일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운데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시상했다.

그동안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 재단 이사장 표창으로 13명이 수상한 가운데 사할린주한인협회 이 세르게이 행정간사(한인청년회 회장)가 수상했다고 전해졌다.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할린한인 1세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기관의 사명을 구현하고 글로벌 건강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할린주에서 연송어 13,000톤 이상 어획

2021년 8월 18일 기준 사할린주 기업들이 1만3천277.858톤의 태평양 연송어를 어획했다. 사할린 수산청의 자료에 따르면 송어가 1만23.158톤으로 가장 많이 잡혔고 이어 연어가 1천854.743톤, 흥연어(네르카)가 1천292.97톤, 은연어(키주츠)가 106.99톤이다. 우수 어업 지역들 가운데 지역에 따른 흥연어, 은연어, 연어, 송어잡이는 세웨로쿠릴스크 지역이 단연 앞서고 있다.

사할린 서쪽 아래 해역에서는 성어기 초기부터 송어 4천383.7톤과 연어 3백80.007톤을 어획했다. 사할린의 동쪽 해역에서는 송어 4천383.541톤, 유즈노쿠릴스크 해역에서 송어 1천238.721톤, 연어 30.79톤, 흥연어 21.96톤을 어획했다.

올해 사할린주에서 태평양 연어 어획 권장량은 4만3천854.139톤이다.

#### 8월 18일 기준 사할린의 코로나 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4명

사할린 정부가 8월 18일 기준 코로나 19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1,863명이 치료 중이며, 그중 517명이 요양소에서 치료받고 있다. 총 사망자는 187명, 입원 가능 병상 438개 남아있고, 하루 확진자는 97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총 16만497명인 가운데 하루 '스푸트니 V' 접종자는 645명, '스푸트니 라이트'는 354명이 접종했다. 외국인 접종자는 총 2388명으로 하루 접종자는 103명이다.

집단면역률은 51%이며, 백신 접종에 있어 하루 2차 접종자는 95명, 2차 접종 완료자는 1천214명이고, 백신 5만2천383회분이 남아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완치자 3만 명이 항체를 갖고 있으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만6,580명이 접종을 받아야 하고, 주민 60%에게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 새고려신문

###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8월 15일 망향의 탑에 헌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сахалин한인들에게도 이 명절은 뜻깊은 날이다. сахалин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마다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다. сахалин주 한인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해마다 8월의 세 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에 8월 15일 сахалин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내외, 코르사코브 한인회 이태출 회장을 비롯 지역 한인회 관계자 등이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설치된 сахалин 희생 동포 위령 기념 조각물(망향의 탑)에 생화를 헌화하였다.

전날 코르사코브 한인회 회원들이 망향의 탑 현장에서 대청소를 하였다고 전했다.

(사진: 주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영사출장소 제공)



### 2022년 сахалин 전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도입할 예정

코르사코브와 노글리키 지역이 깨끗한 섬을 위한 투쟁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와 합류하고 있다. 2020년에는 сахалин주 전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입할 계획이고, 2023년에는 쿠릴 열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가 쓰레기 분리수거로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 정책을 이해해주시는 сахалин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2030년까지는 쓰레기의 30%가 재활용을 위해 분리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역들에게 지시했다. сахалин주는 2024년 말까지 이러한 지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으로 전환의 첫째 단계이다. сахалин에서 이런 과정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분류 라인 가동과 쓰레기 재활용의 처리 시설 운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сахалин주 공공주택사업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가 설명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는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캔 분리수거함이 547개 설치돼 있다. 추가로 50개의 분리수거함을 더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작업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이즈웨스트코워예)의, 코르사코브, 노글리키 3곳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분리수거함에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들을 포함해 쓰레기를 분리하는 차량 분리수거가 1차로 가동되며 재활용으로 분류된 쓰레기는 압축되어 러시아 본토로 이송된다.

сахалин에서도 재활용 쓰레기를 가공하여 폴리머관과 도로 포장용 각석 생산에 이용할 계획이다. сахалин주는 이 일을 할 재활용 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сахалин에 에코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곳에 종이, 종이박스, 폴리에틸렌 봉지, 플라스틱의 2차 가공을 위한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주 정부가 밝혔다.

### 리마렌코 주지사, 8월 15일 한반도의 광복절 축하인사 전달

알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 주지사는 "친애하는 여러분!

8월 15일 한반도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сахалин한인들에게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러시아는 이 명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소련의 군대 덕에 여러 부분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공적으로 남 сахалин과 쿠릴 열도가 해방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도 끝났습니다.

сахалин에 정음으로 끌려온 한인들은 종전 후 сахалин에 머물러 살며 그들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과의 경제적, 인도적 관계 수립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сахалин주는 몇 세대에 걸쳐 сахалин한인들에게 고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сахалин한인들에게는 8월 15일 광복절과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일인 9월3일 두 날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절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확대시키고 우리 국민과의 우호관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과 강건함과 더 나은 삶을 기원합니다!

명절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를 여러 매스미디어로 전했다.

### сахалин, 전국 청년포럼 진행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сахалин에서 <오스트로와(섬들)> 전국 청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 82개 지역에서 500명의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였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이 포럼에 올해 참가 지원자가 많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9:1의 신청 경쟁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15일에 있던 포럼 개막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영사가 대독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직접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가 환영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필요3가지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는 애국적 방면, 둘째는 에코(생태학적인, 친환경) 방면, 셋째는 - 창의성 (여러 분야에서의 창조적 산업) 방면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스미르니흐,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흠스크를 방문하고 사회적 계획안, 친환경화 과정 및 창조 산업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기획들도 소개했다. 포럼은 сахалин주 정부와 연방 청년청 주최로 진행되었다.

### 이 모 저 모

#### <2021 - 대구>대회 우글레고르스크에서 개최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2021 - 대구>경기가 열렸다. 연례 아마추어 낚시대회는 지난해에 지역 행정부가 후원을 안 하게 되어 올해는 '우글레고르스키 낚시인' 현지 클럽을 통해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상금을 조성했다.

8월 14일 오전 6시 우글레고르스크 난파선 구역 해안가에 참가자들이 모였다.

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터보트와 고무보트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날씨와 바다도 최적의 상태여서 행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었으며 물고기도 잘 잡혔다. 12시에 모든 참가자들이 해안가로 나오자 심사위원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고, 13시에 우승자 시상식이 진행돼 8개 부문에서 시상했다.

####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ве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Треска-2021"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ве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Треска-2021". Это ежег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рыболовов-любителей, в прошлые годы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мога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но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 отказали, поэтому через местную группу "Рыбаки Углегорска" неравнодушные граждане сами сформировали призовой фонд.

14 августа в 6 утра в Углегорске в районе затонувшего корабля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побережье. Всег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30 человек,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имеющий лодку с мотором и сн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отлично, погода и море были шикарными, рыба ловилась очень хорошо, в 12:00

все участники вышли на берег, судейской коллегией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контрольное взвешивание.

В 13:00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8 участников в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 17개의 сахалин 팀 '오렌지 볼' 경기에 참가

지난주 일요일 전국에서 '3X3' '2021 오렌지 볼' 농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сахалин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сахалин의 몇몇 지방에서도 농구 대회가 열렸고 인근 도시의 팀들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로 와서 주요 농구 경기에 참가했다. 경기는 세 개의 연령대별 그룹에서 우승자가 결정되었다.

"경기에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뿐만 아니라 주 남부 도시들을 대표하는 17개 팀이 경기에 참가했다."고 주 농구 연맹 부회장인 안톤 라자레브가 말했다.

16세 이하 여자 경기에서는 '박스' 팀이 우승했고, 이 연령대의 남자 경기에서는 '틴 스쿼드'팀이 우승했다. 17세-18세 남자 경기에서는 '그루버 스테이트 패밀리'팀이 1위를 차지했고 치열한 경쟁이 치러진 가운데 흠스크 팀이 2위, 네웰스크 팀이 3위를 차지했다.

17세-18세 여자 경기에서는 '브네 아우타'팀이 승리의 축하를 받을 만했다.

"18세 이상의 참가 팀이 훨씬 많았다."고 18세 이상 여자 경기의 우승 팀인 '바르다크'팀의 안나 마주르 선수가 말했다. 18세 이상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바르다크'팀은 '파티 코롤레브'팀보다 실력이 월등했다.

남자 경기는 결승전에서는 30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сахалински 메드웨이(сахалин 꿈팀)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경

기가 마무리되었다. 3위는 '포스트로이쎄 플로샤드쿠'가 차지했다고 сахалин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 17 сахалинских команд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ранжевый мяч"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аскетболу "3x3" "Оранжевый мяч — 2021".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Мяч в корзину забрасывали в несколь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строва, а главной ареной турнира бы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уда приехали команды из близлежащих городов.

Сильнейших определили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 У нас было 17 команд, представлявших не только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но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юга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баскетбола Антон Лазарев.

В турнире девушек до 16 лет лаврами победителей были увенчаны игроки "Бакса". У юношей этого возраста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градили команду Tune Squad. Баскетболисты "Грувер Стэйт Фэмили" первенствовали в турнире юношей 17-18 лет. Серьез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им составили команды из Холмска (второе место) и Невельска (третье). А у девушек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победой заслужили игроки команды "Вне аута".

—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было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18+, — говорит Анна Мазур, ставша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в составе "Бардака". В финале ее команда была сильнее "Пати Королев".

Мужской турнир завершился триумфом игроков команды 30+. В решающем матче они нанесли пора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м медведям". Третий призер — команда "Постройте площадк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면에 계속)

# 올가을 한국서 '러시안 시즌' 개최 기대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최근 황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양국 간 문화적 대화 발전과 올해 가을 한국에서 '러시안 시즌'을 개최하는 문제를 상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문화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언론인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적 유대(紐帶)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양국관계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또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 프로젝트를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이어 "한러 수교 30주년을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이정

표이다. 이 사건에 맞추어 특별히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지정되었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러시안 시즌'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올 가을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바슈메트가 주최하는 '모스크바의 솔리스트' 실내악단의 공연으로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안 시즌'의 일부인 교육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혁신 실습 및 러시아인 시즌 학교'에 세계 각국의 재능있는 인재들을 다양한 분야의 러시아 유명 문화인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초청한다고 말했다.

황희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우리는 현재 여건에서 '러시

안 시즌' 축제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또한 바슈메트 실내악단의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담을 마치면서 류비모바 장관은 황희 장관에게 올해 11월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9회 샤프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참가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했다. 한국 측은 이 포럼에서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와 '러시안 시즌'과 관련된 인상 깊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원일, NEWSROH)

# 사할린의 백신 접종자들 중 1천명 추첨, 당첨금 10만 루블리

러시아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제공하는 당첨금 지급 규정을 승인했다. 이 지급은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속된다.

추첨 참가에는 백신 접종 단일 등록부에 고유번호를 가진 러시아 성인만 참가할 수 있다.

이는 '고즈낙' 주식회사가 감독하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보누스자즈도로비예'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결과도 여기에서 발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참가자들 중 당첨자 선정은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의 무작위 추첨으로 1000명을 뽑는다. 당첨 상금에 대한 정보는 국가 및 지방 서비스 포털사이트의 개인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즉시 알림도 발송된다.

당첨금 수령자는 '미르'결제 시스템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당첨금 지급은 추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진다.

#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다

전 세계 12개국 65명의 현직 및 차세대 유망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제7차 세계 한인 정치인포럼이 '세계와의 조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장인 씬디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축사 영상, 비전을 담은 주제 영상 및 제주 전통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8월 18일, 19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65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치 도전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

제사회 지지에 한인 정치인들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 등 동포사회의 관심과 현안에 우리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전하였다.

또한 세종연구소의 문정인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현 정부의 평화전략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 드라마의 주역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한 한인 정치인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해 4.3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과 세계에서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영광이다. 인류 공동선에 힘쓰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협력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올해도 러-일 간 무비자 방문 없을 것

일본의 홋카이도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9월에 팬데믹과 관련하여 쿠릴 열도의 남부 섬들과 일본 간 무비자 방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섬들을 방문하려는 일본인과 이 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무비자 일본 방문 체제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5월과 10월에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19년까지 시행되었다.

현재 양측의 무비자 방문은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무비자 방문은 묘지 방문 3차례를 포함한 19 차례의 무비자 방문이 계획되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 9월에 재개를 희망하지만

일본의 팬데믹이 악화되면서 2021년 무비자 방문 문제는 종결된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이 섬들에 있는 조상의 묘에 방문 지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에 이 섬들에 거주했던 주민들 중 평균 86세 주민과 이들의 가족의 참여로 '해상 위령제' 진행 문제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10월에 일본 측이 무비자 방문단을 위해 비행상으로도 섬들을 관광할 수 있도록 쿠릴 열도 남섬을 순회하는 방법을 찾기도 했었다.

일본 측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이들 섬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의료 검진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한 사실에 불만을 표했다. 이 활동은 1995년부터 인도적 지원

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쿠릴 열도로 일본 의료진의 방문 취소는 현재 8월 말까지 6개 현에 팬데믹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와도 관련돼 있다.

쿠릴 남섬의 무비자 방문은 쿠릴 남섬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1989년 일본 정부가 주도해 추진했다. 1991년에는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민들을 위해 쿠릴 열도 남섬 방문을 간소화했고 1992년 4월부터는 무비자 방문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까지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섬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 1만1천 32명 이상이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국민 2만5천 800명 이상이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마스 레슬링 축제 포로나이스크에서 개최

사할린 마스 레슬링(야쿠치야 민속 레슬링) 축제가 지난 주말 포로나이스크에서 열렸다. 스포츠 축제는 전 러시아 체육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됐다.

포로나이스크 시 공원에는 가장 어린 참가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30명이 모였다.

경기 참가자들에게 사할린 스포츠부는 기념품을 하사했다. 이번 행사는 포로나이스크 지방 행정부의 후원으로 지역 마스 레슬링연맹이 주최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 Фестиваль мас-рестлинга провели в Поронайске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мас-рестлинга прошел в Поронайске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отметили в чест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Поронайска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30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 от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до возрас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Каждый был награжден памятным подарком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ая федерация мас-рестлинг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4회 광어의 날 이투루프 섬에서 기념

올해 '광어의 날. 이투루프의 맛' 축제에 있어 '14'일이란

숫자는 상징적이다.

첫째 토요일이 14일이었고, 축제가 14시에 시작되어 이를 기념하는 의미의 일환으로 진행된 낚시 대회에서 낚시인들이 마침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광어, 정확히 14 마리를 잡았다.

낚시 대회에 3팀이 참가한 가운데 워토르 루키야노브의 팀이 가장 많이 잡아 광어는 총 9마리로 무게가 250kg 이상 나갔다. 우승 결과 이 중 가장 큰 광어는 워토르 그리추셴코가 잡은 것으로 무게가 46.8kg이나 되었다. 광어 잡이에는 전동릴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잡았다. 최우승 팀에게는 수중 비디오 카메라를 부상으로 수여했고, 2위에는 39.4kg 잡은 안드레이 파데예브가 차지해 부상으로 해저 축정기를 받았으며, 3위는 25.4kg을 잡은 엘리자베트와 에두아르트 메르켈 부부가 차지하여 부상으로 바다 낚시 릴을 받았다.

이투루프 지역 바짐 로코토프 시장은 축제 참가자와 귀빈에게 환영인사를 전하고, 무대에는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아동과 성인을 위한 활동교실과 경연도 열렸다.

축제 행사장의 전통적인 구역 중 하나는 푸드 존(식당)으로 여기에 광어 구이, 튀기거나 튀김옷을 입혀 부쳐낸 광어, 광어 국, 광어 햄버거 등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슈르파, 샬슬리, 롤 등 많은 다른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다. 많은 음식들이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구운 육고기나 일본식 요리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잠시 후식을 갖고 저녁 축제가 시작되어 불쇼, 쓰러질 때까지 이어진 노래와 춤, 그리고 가장 오래 축제를 버텨낸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볼 수 있었다.

## День палтуса на Итуруп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Число "14" дл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День палтуса. Вкус Итуруп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символической. Во-первых, суббота выпала на 14-е число, начало праздника назначили на 14 часов, и наконец, ровно 14 — ни больше ни меньше — палтусов поймали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рыбаков, проводимого в рамках означенного торжества.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и три команды. Львиная доля пойманной рыбы пришлась на команду Виктора Лукьянова — они поймали девять рыбин общим весом более четверти тонны.

На счету победителей и самый крупный палтус, который потянул на 46 килограммов и 800 граммов. Его поймал Виктор Гричушенко, причём всё это вручную, без электрокатушки. Призом за победу команде стала подводная видеокамера.

Второе место у Андрея Фадеева — он вытянул палтуса весом 39,4 килограмма и в подарок получил эхолот. Елизавета и Эдуард Меркель — третьи. Их результат — палтус весом 25 килограмм 400 граммов. Домой супруги отправились с катушкой для морской рыбалк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к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обратился глава района Вадим Рокотов. На сцене состоя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онкурсы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Ещё одна из традиционных зон на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 фуд-зона. Палтус жареный, он же — в кляре, он же — в сухарях, он же — в ухе, он же — в составе бургера. Шурпа, шашлык, ролл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блюда смогли отведать гости. Многие из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ого выдали бесплатно, за жареное мясо и японские изыски нужно было платить.

После небольшого перерыва началась вечерняя часть праздника. Фаер-шоу, песни и танцы до упаду, а самым стойким в награду —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Останки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 До перевезены в Южную Корею

Южная Корея репатрировал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останки легендарн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 До в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 воскресенье 15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направил специальную делегацию на военном-транспортном самолете в Казахстан для доставки останков Хона на родину.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б этом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изита Муна в Казахстан в 2019 году.

Хон известен за с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борцам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в битве с япо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Маньчжурии в 1920 году.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Хон и его отряд передислоцировались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о в 1937 году он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корейцами в Казахстан по приказу Сталина, где он скончался в 1943 году, сообщает ИА РУСКОР.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Чжон Су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на авиабазе в Соннаме.

Останки героя были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в среду 18 августа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чжоне.



## Все, что я делаю в лингвистике – это 100% уникальные новинк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Мун Хе Ун: бизнесмен, переводчик, изобретатель, репетитор, коуч...

Не так давно в нашей газете вышло интервь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 Мун Хе Ун (Вячеслав), человек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интересов и талантов. Он написал и издал не похожий на все Учеб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усский вариант интервью.

-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Вы немного рассказали о себе. Знаю, что Ваша родина – Сахалин.

- Я родился в с.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ервое время я жил с родителями у дедушки с бабушкой.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 выходцы из южных районов Кореи. Дедушка был грамотным человеком.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на заработки, помогал семье. Пользовался в нашем районе большим авторитетом.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ейчас мои родители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смогли уехать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ам я уже давно живу в Москве.

На Сахалине я учился в двух школах. В школьное время очень любил спорт. Хотел бы отдельно отметить воспитателей и учителей. Они все были добрые.

- У Вас диплом об окончании тре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К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ы получили, что они дали Вам в жизни?

- Два бакалавра и магистратура по теологии и менеджменту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вое св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учил в сахалинском филиал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мЮк. Учился на теологиче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В моем случае, первая специализация – теология пошла мне на пользу, и библия стала мне основной инструкцией по жизни... Уже позже пришло осознание, что необходимы знания по экономике. Учась в Москве, получил глобальные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Помимо бакалавра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об окончании магистратуры по менеджменту организации.

- Как долго Вы изуч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Что сподвигло Вас к написанию учебника,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и словаре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Честно говоря, у меня нет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о посещения детсада я говори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но после утерли коммуникацию с ним, потому что попал в русскоговорящее общество, и жили уже отдельно от дедушки и бабушки. А восстановил владение языком в начале 90-х г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встретившись в то врем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миссионерами из SDA, Самюк организации. Я восстановил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языка так быстро, что носители языка думают, что я роди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прашивают мою методику изучения языка. Уже в студенчестве я уже был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переводч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драбатывал переводчик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методической церкви, где даже дважды был удостоен чести прочтения проповед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я всегда говорю своим ученикам, что не важно сколько вы изучали предмет, а важно – КАК.

У меня был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ракти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ботал в отеле Хендэ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 также лично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н Мун Су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работ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подавая язык в ДВГТУ, понял, что язык дают не эффективно. Поэтому решил издать первое по-

МУН ХЕ УН, МУН АННА

### ЮЖНОКОРЕЙСКИЙ ЯЗЫК 한국어

Новая методика НОВЫЕ РАЗРАБОТКИ

Иллюстрации УПРАЖНЕНИЯ с ответами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аттестац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Семинары лекции

1-ОЕ ИЗДАНИЕ Формат А5

УЧЕБНИК ОТ ПРАКТИКА

Instagram: @slawa.mun @slavik.mun YouTube: slava mun TikTok: slavamun555

собие по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ю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о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ведущий кореевед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В.Н.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н Рю Джонгюн. Кстати, господин Рю дал статью о выходе пособи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журнал «Гогук Социк(Вести с Родины)». Господин Рю Джонгюн, увидев мое пособие, сказал мне: «Я тоже планировал издать подобное пособие, но Вы опередили меня». Я очень ценю и уважаю этого директора. Очень добрый, отзывчивый и скромный человек, настоящий профессионал своего дела. Тогда он закупил 100 пособий для Центра. Тогда же появилась идея о новой системе заучивания слов. Не так давно я издал «Прак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ложных слов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чеб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нечно же,

езд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терми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о я хотел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это язык, которым пользуются южнокорейцы. Все, что я делаю в лингвистике – это 100% уникальные новинк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 Предст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свой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чем его особенность?

- В том, что я попытался разработать новую методику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новую тему для продвинутых. Новая методик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алфави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 почти на каждую букву, поделенная на три этапа – это идеальный вариант для дошколят, школьников. Новая тема «Семантика» - адрес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т раздел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достичь уровня Advanced и выше – носитель языка. Это тема развивает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через познание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образ мыш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Учебник оснащен обложкой из soft touch, внутренний и внешний блок из белой бумаги с цветными иллюстрациями, страницы для записей, ответы на контрольные работы, а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 вы ознакомитесь с историями автора между темами.

- Знаю, что вы человек разнообразных талантов, которы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е в жизни. Можно о них немного подробнее?

- Кто-то может подумать, что я сыр-бор, но все, что я делаю подтверждаются патентами или отзывами клиент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 изобретатель и патентообладатель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ы – это массажеры и тренажеры. Я -синхронный переводч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й переводчик английского; репетитор по двум языкам(корей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тренер по шахматам; коуч в области бизнеса, психологии; спортивный тренер, видеоблогер, а также занимаюсь немного бизнесом(торговля).

-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сегодня? Чему отдаете предпочтение?

- На этот вопрос ответ прост. Делаю все, что могу. Потому что пандемия требует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влечен преподаванием шахмат в детском саду.

- Ваши любимые фразы, выражения? Праведник семь раз упадет и встанет... Стучащему отворят. Ищущий найдет. Быть водой.

- Чему хотите посвятить себя в будущем?

- Когда я достигну всего, к чему стремлюсь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ланирую посвятить себя детям, открывая нов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уже в других масштабах.

-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ваших проектах и начинаниях!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Лидеры РК и Казахстана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сшир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и Казахстан расширя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траслях, связанных с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е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и освоением космос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17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зидентов РК и Казахстана Мун Чжэ Ина и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в РК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особо крепкой дружб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н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азахстану 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ов легендарн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Хон Бом До. Он был командиром одного из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Арм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Ыйбён», положившей начало вооружённой борьбе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заторов. Хон Бом До умер в Казахстане в 1943 году и там был похороне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зидент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ложил сторонам «продолжать постоя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развития непоколебимых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ун Чжэ Ин напомнил, что Казахстан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партнёром РК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ве страны предприм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по достиже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Евраз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братился к Казахстану с просьбой продолжать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мирному процессу в Корее, а президент Казахстана ответил, что опыт его страны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пр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лавы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ради углубления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в рамках Года взаим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2022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30-й годовщины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осетил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где отдал дань уважения павшим корейским патриотам.

## Сеул выразил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новых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и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разило решительный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обозначения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 качестве япо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карте, включённой в Белую книгу по обороне для детей. 16 август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ИД РК Ли Сан Рёль вручил ноту протеста советнику-посланнику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Наоки Кумагаи, а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РК в Токио Ким Ён Гиль вручил аналогичный документ заместителю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Японии Тайсукэ Мибэ.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е напомнили, что острова Токто -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территории РК историческ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Сеул призвал Токио вне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справления в карту. Острова Ток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являю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апряжённости между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поскольку Токио продолжает заявлять о своём суверенитете над островами. Между тем, РК контролирует их с момента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в 1945 году.

##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около 70% помощи будет распределено среди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предстоит распределить около 70% средст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оказа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пострадали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7 августа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Хон Нам Ги.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чь идёт о сумме - 4 трлн 220 млрд вон (3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Хон Нам Ги сообщил об усилени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нынешней волны пандемии, поскольку строгое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ослабит внутренний спрос. Позд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народует план выдач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денежных пособий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мся жителям страны.

## 1.419 отказников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совест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альтернативную службу

1.419 южнокорейцев-отказников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совест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альтернативную служб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ак сообщили 13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четверо из них назвали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отказа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личные убеждения, а остальные сослались на причины религиоз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закону все трудоспособ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ужчины должны пройти обязательну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Однако в 2019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риняло закон, позволяющий тем, кто отказывается брать в руки оружие из-за религиозных или других личных убеждений, заменить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RKI)

## Ким и Путин подтвердили верность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 2019 года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твердили дружественные связи своих стран и выразили стремление к дальнейшему двухсторон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обменявшись посланиями по случаю 76-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ей.

В послании, направленном Путину в воскресенье,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ружественные связи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общего врага» продвигаются через поколения,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они станут еще прочнее и вырастут до «нов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отслеженном в Сеуле.

В тот же день Путин направил послание Киму, в котором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ве страны «чтут память бойцов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которые

отдали свои жизни за свободу Кореи».

Пути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дву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взаимовыгодной основе будет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ваться через выполнен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на встреч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2019 году», имея в виду саммит, который провели лидеры в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роде.

Ким и Путин обменялись посланиями по случаю очередной дат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ей в 1910-45 года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крепляет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ги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включая Китай и Кубу, на фоне затянувшейся паузы в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 США и глоб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ИА РУСКОР

##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иностранцев в стране меньше 2 миллионов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кратилось до самого низкого за пять лет уровня в июне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реи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Иностран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1,98 миллиона в июне, на 0,3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чем в мае и самое низкое с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когда оно составляло 1,89 миллиона.

Число достигало пика в 2,52 миллиона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но упало почти на 100 000 в январе 2020 года с нач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Юж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за пять лет упало до ниже 2 миллионов.

«С начал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по миру многие страны закрыли свои границы и ограничили путешествия»,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щ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ло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о действ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и ужесточило проверку виз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въезда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Статистика, выпущенн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то время как иностран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кратилось с 2,52 миллиона в конце

2019 года до 2,03 миллиона в конце 2020 года, число супругов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супругов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выросло до 168 594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144 681 в 2011 году, при этом свыше 80 процентов составляют женщины.

Со строгими мерами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Кореи приостано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некоторых услуг иностранцам или перевела их в режим онлайн. Так, в режим онлайн перешла программ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Сеула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раков. Фонд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реи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 программу помощи обустройству иностран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центров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в регионе Сеула также перешли в режим онлайн.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Инчхоне призвал к соблюдению мер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поскольк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ыросло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COVID-19.

«Мы получили сообщения о нарушении противозаразных правил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где заняты иностранцы»,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 посоветовав мигрантам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массовых сборищ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ИА РУСКОР

##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цены на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ю останутся стабиль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ложит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преддверии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цены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оставались стабильны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3 августа зам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Ли Ок Вон. По его словам, цены будут ниж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Спрос на овощи, яйца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обычно повышается,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готовят праздничные блюда для семейных встреч.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 РК в июле выросли на 2,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Цены на продукц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вы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9,6%, что обусловлено ростом потребл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ем предложения. Так, цены на куриные яйца увеличились на 57%,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 апреля в стране не 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птичьего гриппа. Эксперты заявляют, что риски роста инфляции сохраняются, поскольку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могут ухудшиться из-за жаркой погоды и тайфунов, а цены на нефть могут расти.

KBS World

## Число сотруднико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РК сократилось за 3 года на 27 тыс.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Х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7 августа,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отрудников ста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лял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1 млн 39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27 тыс. человек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нцом 2017 года.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число уменьшилось на 9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Самым крупным работодателем является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гд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ботали около 268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60,4%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компании составили сотрудники её предприятий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сотрудников ведущ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Hyundai Motor – 121.400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LG Electronics – 75.900 человек, и Samsung Display – 72.900 человек.

KBS World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алимпийцами

Спортсмены тренирую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оходят акклиматизацию перед Играми в Токио.

– Принимать атлетов перед большими стартами стало для Сахалина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ашими гостями были олимпийские сборные по теннису и карат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йдя сахалинский этап, очень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Играх. Теперь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сильнейших паралимпийцев, которые совсем скоро будут защищать честь Росси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лаванию и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Будем болеть за вас и надеяться на победу. И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оздав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на Сахалине, как для островных атлетов, так и для наших гост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Играм в Японии прибыли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 спортсменов, тренеров, врачей. В сборной есть как опытные спортсмены – чемпионы и призеры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чемпионов мира и Европы, так и дебютанты Паралимпиады.

Раиса Чебаника –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всевозможных наград в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О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на Играх в Лондоне, на чемпионатах Европы и первенствах России.

– Настрой перед стартами боевой.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еннису. Сейчас нацелены на реванш. На Сахалине у нас прекрас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новое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в гостинице, – поделилась чемпионка.

Для Владимира Топоркова Игры в столице Японии станут первым паралимпийским стартом. Спортсмен-колясочник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ся призерами чемпионатов России и завоевал право представлять страну на крупнейш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 Мы все, и я в том числе,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и не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нашу Россию не подвест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с гордостью смотрели на нас по телевизору и болели, как недавно болели за олимпийцев,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Теннисисты тренируются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волейбол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овцы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в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Аква Сити». Атлеты и тренеры высоко оценивают оснащенность и доступность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 Мы благодарны, что у н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Игр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замечате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дходящий климатический и ременный диапазон. Перелет на восток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всегда дается непросто. А у нас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пройти адаптацию перед Токио, – отметил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портивной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о плаванию Юрий Назаренко.

В Японию спортсмены отправились 19 августа.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стартуют 24-го.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сплатно вакцинируют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все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Чуть более 10 процентов отделяют сахалинцев от затател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Чтобы прервать цепочк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болевания, невосприимчивым к инфекции должно стать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совместно на одной территори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гражданства.

– Иностранцы граждане, имеющие страховой полис, смогут записаться и прийти на прививку в поликлинику или мобильный пункт. Человек с паспортом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ет такие же риски заболеть или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заболевание, как и сахалинцы. Чем больше среди нас будет привитых людей, тем быстрее мы сможем остановить эпидемию и защитить тех, кто не может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трудоустроена в учреждениях торгов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 сферах, связанных с частыми контактами, близк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и риска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действует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писывает проведение вакцинации среди сотрудников та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До 20 августа в этих сфер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ить 60 процентов сотруд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решению о беспл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иностранцы граждан этот процесс должен пойти быстрее. Надеюсь,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организаций выйдет в срок к показателю 60 процентов и к ним не придется применять санкции, связанные с закрытием предприятия,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санитар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акцинацией охвачены все сферы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мунизация проходит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ах.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лидируют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спорт. Низкими на сегодня остаются показател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рыболовстве, туризме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Напоминаем, запас вакци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таточен, чтобы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гли все желающие. Записать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или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поликлинику.

## Новейшее судно «Павел Леонов» готовится к рейсу на Сахалин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е судно «Павел Леонов» по Неве осуществило переход из Шлиссельбург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авел Леонов»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отправится в порт Корсаков. Вопрос надеж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вяз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авел Леонов», как и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был построен на Нев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судоремонтном завод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уже с июня ходит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Кунашир – Шикотан – Итуруп.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авел Леонов»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нему в октябре.

Долгое время на куриль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ботало только одно пассажирское судно –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90-х годов постройки. С выходом на линию новейш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открываются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ерев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Павел Леонов» и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вмещают более 100 пассажиров каждое. На борту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в каютах есть душевая, телевизор, откидной столик.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аюта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каюта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Есть просторная столовая и удобный пассажирский холл.

Цены на билеты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держатся на прежнем уровне. Стоимость поездки в каюте обычной категории составляет 3255 рублей (при покупке в кассе перевозчика).

Новые суда дают перспективы и для роста грузооборота. Каждое из них вмещает до 24 контейнеров и 6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А благодаря ледовому классу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могут круглогодично доставлять людей и товары на острова.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молодежь с открыти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15 августа в торгово-деловом центре «Столица». Фору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лится до 19 августа и объединит 5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8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одно место претендовали 9 человек. На «ОстроVaх» молодежь сможет прокачать карьеру,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и выиграть гранты на воплощение в жизнь своих идей.

Приветствие в ад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на Сахалине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молодой проект «ОстроVa» занимает заметное место в ряду молодежных форумов России.

Талантливых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поприглас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и острова –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развития с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Мы открыты для всего нового. И именно здесь у молодеж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креативные идеи и проекты. А наш форум поможет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регионе и его перспективах.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наши гости создавали общи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области и ее жителей. Не стоит ждать очереди в столице.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ах, где зарождается день нашей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вы можете нач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Друзья! В ваших руках будущее. И я приглашаю вас создавать 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братился к форумчанам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означил тр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где нужны молодежные идеи. Первое –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Здесь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подготовка к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исковая работа и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памяти павших героев войны,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в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Не менее важно экол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ледуя мировому тренду на декарбонизацию,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На островах угольные и мазутные котельные заменяют на газовы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роцент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азвивается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энергетика, внедряется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и переработка мусора.

Третье направление – креативное –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оригинальных идеях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на разработку концепции эколописи – макрорайона Корсакова. 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передовой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Эти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лежат в основе треков форума: «ОстроVa Развитие», «ОстроVa Экологии» и «ОстроVa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Молодежь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уде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нициативы, как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лучше.

Ангелина Куликова приехала на «ОстроVa» из города Череповец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Девушка интересуется креативными индустриями – вмест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она создала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 У меня цель – объехать вс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идеями. Я занимаюсь театр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кинокультурой и организацией событий. Еще мне нравится находить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с разными взглядами на жизнь, и форум дает мне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 рассказала Ангелина.

У участник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и выиграть грант до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ОстроVaх» ребята оформляют свои идеи, находят команду, а эксперты помогают доработать инициативу.

Сахалинец Даниил Ахмади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ложил проект по основам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 Благодаря форуму моя идея нашла поддержку.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опытных наставников мы преподаем школьникам строевую, огневую, инженер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зучали тактическую медицину. В этом году я снова пришел на «ОстроVa» за вдохновением и зарядом энергии, – поделилс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Отметим, форум «ОстроVa»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Итурупом введ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виарейсы

Они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ей «Аврора» 19 и 22 августа. Цена билета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ей – 5950 рублей.

19 августа рейс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урильск отправится в 19.05,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в 21.00. 22 августа полеты на этом маршруте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в 20.30 и 22.25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зобновили полет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а также рейсы, соединяющие Ноглики и Шахтерск с Хабаровском. Введен новый маршрут до Красноярска.

Так, самолеты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летают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 по пятниц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составляет 5640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Из Ноглик в Хабаровск рейсы совершаются дважды в неделю – во вторник и воскресенье. Билет обойдется в 4500 рублей.

Летать по маршруту Шахтерск – Хабаровск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и пятницам. Цена билета – 4635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Через Красноярск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летают в Москву, Краснодар, Сочи, Анапу, Симферополь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ейсы по маршруту выполняют по вторникам, пятницам, суббот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Цена перелета в одну сторону – от 5600 рублей.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равил в Невельск комиссию по вопросу реставрации барельефа Гагар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город выех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а также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рельеф Юрия Алексеевича Гагарина будет обязательно отреставрирован. Долгие годы он разрушался,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 его очистить, подготовить к реставрации. После деталь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станет ясно, полное или частич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требуется барельефу и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на это потребуются. А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ка займется поиском и подготовкой площадки, достойной памяти первого космонавт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помним, 11 августа в СМИ появились фотографии барельефа, выброшенного на берегу моря. Раньше он располагался на въезде в Невельс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треставрировать барельеф Юрия Гагарина и разместить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Один из них – напротив Невельск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поиск подрядчика, который проведет реставрацию. Не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омочь с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этих работ.

##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устроили пляжные зон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места отдыха у водоемов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пляжах должны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ы кабинки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туалеты и контейнеры для сбора мусора.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ыхать с комфортом. Места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но не везде были благоустроен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мэрам исправить это, тем более, что с погодой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м очень повезл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оны отдыха оборудовали кабинка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и туалетам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Ани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Холмском, Дол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Частично с задачей справились в Куриль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Где-то еще предстоит дооборудовать пляжные зон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ейчас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везено и ожидает установк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재단과 MBN,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9일(월)부터 27일(금)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 참가신청서  
다운 및 접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주최하는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

와 함께하는 가요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계한인의 날 15주년(10.5)을 맞아 열리는 '2021 Korean Festival: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는 노래에 재능을 가진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0월 9일(토) 12시 10분 MB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 방법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8월 27일(금)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노래 부르는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리아 페스티벌은 재외동포 예능인의 모국 무대 마련이라는 취지로 1998년 '제1회 재외동포 서울 예술제' 이후 지속되어 온 행사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재외동포재단, '2021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입양동포 참가자 신청 접수 시작

8월 17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행사  
홈페이지(www.okag21.korean.net) 통해  
개별 신청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주최 '2021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참가자 신청 접수가 8월 17일부터 시작됐다.

'2021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행사는 한인 입양동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방법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9월 30일 18:00까지 행사 홈페이지(www.okag21.korean.net)를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올해 행사는 개회식 및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한국 문화체험, 입양동포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모국의 제도 및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세션, 퀴즈쇼 형식을 통해 진행되는 네트워킹 세션, 온라인 공모전, 단체장포럼(비공개 세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 행사를 통해 "입양동포와 자녀분들이 모국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더 많은 입양동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입양동포 간 결속을 다지는 등 네트워킹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리말로 깨닫다]

# 숲 걷기와 노래 한 자락

저는 요즘 숲을 자주 걷습니다. 숲은 사람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그런 느낌을 몸으로 만납니다. 어릴 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이 많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산이 많은 척박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민족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도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은 극복의 상징이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산이 많았지만 나무는 많지 않았습니다. 벌거숭이산이라든가 민둥산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나무가 연료이던 시절에 산의 나무들은 남아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의 추위를 해결해야 했고, 밥을 지어야 했기에 산의 나무를 가꾸고 돌볼 마음이 생기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식목일은 그런 시절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식목일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기념식수가 많아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식목일은 그런 추억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산마다 푸릅니다. 그간의 정성이 이제는 울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무가 숲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숲이라는 말이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산이기에 더 이상 무모한 개발이 힘듭니다. 더 이상 나무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에 산은 점점 더 푸른 공간이 됩니다. 맑은 공기와 나무의 푸름은 지친 우리에게 위로로 줍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산마다 걷는 길이 생겼습니다. 둘레길이나 올레길, 걷는 길, 숲길 등으로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귀한 곳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숲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걷기는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아보고, 달래줍니다.

저는 언제부터가 걷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숲길은 그대로 치유입니다. 치유의 숲,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은 과장이 아닙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생명의 신비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걷기 위한 신발과 옷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걷는 일에는 내 몸과 마음의 자세만 필요할 뿐입니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문득 세상이 고맙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걷기는 내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일하기에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장비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기에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디디면 한걸음만큼 내 머리가 맑아집니다.

걷기는 노래와 닮았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악기 없이는 연주할 수 없음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 악기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악기가 많지만 그래도 불편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요는 내 몸이 악기여서 그저 어느 때고 내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숲에서 민요를 불러봅니다.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며 걷는 숲길이 참 좋네요. 내 어린 감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내 몸이 고맙습니다. 내 소리가 고맙습니다.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편안한 장소를 상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닷가나 숲속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숲길이나 해변을 걷는 건 어떨까요? 걸으며 나를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며 내 몸과 내 속의 감정이 나를 다시 위로해 줄 겁니다. 숲의 기억은 그대로 치유의 기억입니다. 숲길은 걷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가라앉을 때 떠올리는 곳이어서 더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숲길을 걷는 상상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2021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성료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 주제로 8월 9~11일 온라인으로 진행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란 주제로 '2021 제19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200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어교육자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초기에는 재외동포 교육자를 위한 행사로 시작했으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외한국어교육자들과 해외 한국어 채택 기관의 교육행정가들을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장과 참가자들을 온라인 연결해 진행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44개국에서 재외한국어교육자, 교육행정가 등 4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1일차인 8월 9일에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현대무용 그룹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인 연주자 최초로 빌보드·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기록한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축하공연에 이어, 강승혜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대회 2일차인 8월 10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녹화 발표 및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학 교원 및 초·중등 교원, 교육행정가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병행됐다.

교육자 대상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란 주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1 제19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란 주제 아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일차 종합토론 모습 (사진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제로 전 세계 11명의 재외한국어교육자가 해외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활용 및 교사 양성 방안, 국가별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자 대상의 전문연수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진이 교재 개발의 원리 및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행정가 대상의 정책연수에서는 교육부의 해외 한국어 교육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별 맞춤형 교재 및 교원 양성 체계를 포함한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대회 3일차인 8월 11일에는 김정숙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어교육 전문가·교육자·교육행정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를 통해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현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21세

기 문화유산 활용법 - 백준준부터 BTS까지'란 주제로 강연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마련된 역사·문화 탐방에서는 인왕산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감상하며 한국어사·문화 여행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재외한국어교육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된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어의 제2외국어(2020년 3월), 제1외국어(2021년 2월) 채택에 기여한 응웬 띠엔 쯁 베트남 교육훈련부 부국장과 스리랑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2020년 12월) 및 대입시험 과목으로 포함되도록 기여한 수닐 자안타 나와라트너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장 등 총 6명에게 표창이 수여되기도 했다.

대회는 대한민국 춘향극대전에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한 국악 신동 김태연의 폐회식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국가두마 선거 투표용지에 정당 번호 결정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엘라 팜필로와가 14개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추첨으로 번호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8월 15일에 국가두마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 등록과 관련하여 2단계 선거운동이 끝났다. 14개 정당들이 심사 단계를 통과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 달이 청렴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 치러지길 바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러시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위원장이 말했다.

국가두마 선거에 연방 선거구에 따른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에서 정당들의 상징과 추첨으로 번호가 선정이 되었다.

1. 러시아 연방 공산당
2. 러시아 '녹색' 환경보호당
3. 러시아 자유민주당
4. 신인류당
5. '통합 러시아' 전 러시아 정당
6. '정의로운 러시아 - 애국 - 진실 수호'사회주의 정당
7. '야블로코' 러시아 민주 연합당
8. '파르치야 로스타(진흥당)' 전 러시아 정당
9. '러시아의 자유 정의당' 정당
10. '러시아 공산주의자의 공산당' 정당
11. '그란즈단스카야 플랫폼(국민적 기술환경)' 정당
12. '녹색 기획당' 정당
13. '로지나(조국)' 전 러시아 정당
14. '사회적 정의를 위한 연금 수급자들의 러시아당' 정당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자료에서)

###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강생 모집

1. 모집 강좌: (한국어) 한국어 입문 4강좌, 한국어 초급,2단계 7강좌, 중급 3,4단계 2강좌.

(문화교실) 한국문화 초급, 중급 2강좌, 원장 특강 한국문화 1강좌, 세계민속춤교실 1강좌

2. 모집기간: 2021.8.16(월) ~ 8.31.(화)

3. 개강: 2021. 9. 6(월)

\*학교가 개강 후 1주일 늦게 시작함

4. 자세한 문의 및 참고:

(전화) 50-56-96 (홈페이지)

www.sakhalinedu.com

5. 협조 및 참고사항:

(1)교육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2)출석 70%, 수료 후 성적 70%

연을 경우 수료증 수료

(3) '글쓰는 사할린' 강좌는 10월

중에 참가자 모집

사할린한국교육원

###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 Набор в групп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водный уровень (4 группы),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1, 2 степень (7 групп),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3, 4 степень (2 группы).

Классы по культуре: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2 группы). Спецкурсы от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Культура Кореи(1 группа), класс Танцы народов мира (1 группа)

•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16 августа – 31 августа 2021

• Начало обучения: 6 сентября 2021 г.

•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 Центре по тел: 50-56-96, либо на сайте www.sakhalinedu.com

• Примеча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1) Пол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а об окончании курсов возможно лишь при посещаемости не менее 70% и успеваемости не менее

2) Набор на курс «М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Сахалине в рассказах (Пишущий Сахалин)» будет открыт в октябре.

\*Условия посещения курсов – наличие маски и замер температуры

Реклама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ж.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